

# “LH 보유자산 전면적 재평가를”

### 정동영 의원, 국토부 국감 관련 “LH 157조원 재평가 비용 84억원 소요 전망 과거 코레일 자산재평가에서 5조원 자산 증가 효과… 산하기관 대상 실시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자산재평가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29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현재 가

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보유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자산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가 국정감사 기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00년 이전 매입한 주요 비록토지자산 6개의 구입금액은 223억 원이었으나, 장부상 금액은 238억 원으로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액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

원 인근 토지 약 2500평(88,264㎡)은 정동영 대표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전문적인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현재 추정 가치가 약 70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부상 금액은 50억 원으로 약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정동영 대표에게 제출한 ‘LH 보유자산 재평가 소요비용’ 자료에 따르면 LH는 보유한 분양 토지 61조원, 분양주택 10조원, 임대주택 84조원, 유형자산 1조원 등 총 157조원에 대한 자산재평가 비용은 약 8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LH가 보유한 157조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LH 자산 가치는 현재보다 최소 5배, 최대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과거 코레일이 보유한 토지 4,611개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약 5조 원의 자산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공적 사업을 축소하고, 공공자산을 민간에 팔았던 행태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알록달록 단풍 버스킹’

### 전북문화관광재단, 10월 청춘마이크 공연 잇따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알록달록 단풍 버스킹’을 테마로 10월 청춘마이크 공연을 잇따라 연다.

오는 31일에는 김제 모악산 야외 무대에서 11시부터 창작민속단 악(樂)바리와 댄스 퍼포먼스 팀 라스트포원이 공연한다.

11월 2일에는 6시부터 순창 방랑싸롱(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에서 고내밴드, 금관 앙상블 나인브라스의 공연과 11월 3일 오후 2시에는 진안 가위박물관 야외무대(내장산)에서 시소, 소울헌터즈, PANORAMA arts company의 무대가 열린다.

특히, 이번 10월 청춘마이크 공연은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로 가을 한복판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예술 문화향유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한편, 청춘마이크 전북권 고정형

상설 공연은 31일 전주 중앙살림광장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19시 까지 진행되며 다채로운 장르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무대를 펼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2018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은 열정과 재능을 갖춘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청춘마이크 전북권 공연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매달 중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와 SNS(www.facebook.com/jbmic2018, 청춘마이크전북 검색), 그리고 문화사업팀(063-230-744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1~3위 선수단과 함께... 장애인체전 폐막

전북 익산시를 주 개최지로 지난 25일부터 치러진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29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폐막했다. 폐회식에서 송해진 전북도지사와 김의수 대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정현을 익산시장이 종합 1위를 차지한 경기도 선수단과 2위 총족도 선수단, 3위 서울 선수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문 대통령, 내달 1일 국회서

###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오전 국회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예산안 처리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판문점 선언 비준안과 민생입법안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산행에서 올해 국정운영 목표에 대해 크게 외교와 경제분야를 언급하면서 “그러려면 이번 정기국회의 마무리가 중요하다. 많은 입법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국회와 잘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수

## 도내 농기계 사망사고 광역시도 중 4위... 교통안전공 전북, 농촌 교통안전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최근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교통사고가 빈발해 농촌지역 운행 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농기계로 인한 치사율은 전국적으로도 일반 교통사고의 치사율보다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진안군 3개 마을과 순창군 3개 마을을 대상

으로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이용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농촌지역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

경운기 등 농기계의 도로 운행 시 주행차량이 농기계를 잘 볼 수 있도록 안전반사판을 부착하고, 어르신 대상으로 시인성 향상을 위해 야광지팡이 및 전동휠체어 반사판 등을

배포했다. 특히 마을주민 대상으로 보행 중 안전수칙과 안전한 농기계 이용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병행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최근 3년 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로 숨진 사람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1명으로 경북(80명), 전남(75명), 경남(42명) 다음으로 많았다

고 지적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의 농기계 조작 미숙과 야간운행 시 표시등 미부착, 커브길 중앙선 침범, 자동차 운전자들의 과속 및 방어운전 불이행 등 운전자 부주의로 농기계 사고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공단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최근 농번기철을 맞이하여 경운기, 등 농기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농기계는 특성상 속도가 느리고 야간 식별성이 떨어지는 만큼 농촌지역에서 농기계 운전 시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베트남 다락성과 교류 활성화

### 웬 뚜언 하 부위원장 방문단 전북 방문... 농업 등 논의

전북도의 베트남 우호지역인 다락성 인민위원회의 웬 뚜언 하 부위원장(부지사급) 일행이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북도를 방문하고 있다.

전북도와 다락성이 작년 12월 우호협약 체결 이후 첫 고위급 방문이다.

29일, 도는 최정호 정무부지사 주재 하에 전라북도-다락성 간담회를 열고, 농업과 뿌리산업분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농업분야에서 농업인력 단기 교육, 농산물 재배 및 가공기술 전수

등의 교류에 의견을 모았고, 뿌리산업 분야에서는 농기계수출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목표로 양 지역 기계산업협회 간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다락성의 관계부서는 논의된 사항을 올해 안에 구체화시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전북도는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다락성 공연단을 초청한데 이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도 그곳 지역을 초청하는데 성공하는 등 양 지역의 실질적인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도, 전북형 금융타운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방식 추진

전북도는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거점 육성 및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인프라 복합서비스 공간인 전북형 금융타운을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에 공모할 예정이다.

금융타운 조성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국민연금공단 인근 부지 33,254㎡에 필수 도입시설인 금융센터·회의시설·숙박시설 등 금융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집적센터로 계획

중이며 주요시설 규모는 최소 1,000명 이상 수용 규모의 전문회의시설과 2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다양한 사업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며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지역기반 금융기관들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전북대학교**  
CHONBUK NATIONAL UNIVERSITY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